

해외연수를 마치면서 ...



김 용 환
(한국조경수협회 부회장)



일본

- 여행시기 및 기간 : 2007년 7월 3일 ~ 6일(3박4일)
- 연수국가 : 일본(가와구찌, 동경, 하코네 등)
- 연수목적
 - 일본의 조경수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및 주요 유통수종 등 경향
 - 일본조경수 생산농장의 최근 유망 조경수종 및 규격 등 생산방향
 - 현장 방문을 통해 습득한 학습을 토대로 벤치마킹하여 한국조경수 산업의 소득증대와 생산의 성력화 등
- 참여인원
 - 김창옥회장의 23명(명단 별첨)
 - 하나항공여행사(이근역사장), 가이드 이진희

□ 일자별 주요행사 및 주요 학습내용

〈7월 3일〉

- 10시 : 24명 참석확인, 서로인사 후, 출국수속 후 대기함. 가이드 이진희, 하나항공여행사(이근역)안내에 따라 짐과 출국 수속을 완료함.
- 10시 40분 : 대한항공 k713편 김해비행장에 목적지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 기내식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음.
- 12시 40분 : 도쿄 하네다 공항 착륙 후, 입국 수속 마친 후 가



▲ 치바(千葉)현 川繁園(가와시겐)농장 방문

마구찌(川口)구역 버스가 미기 대기되어 있어 전원탑승.

- 13시 : 치바(千葉)현에 있는 川繁園(가와시겐)대표이면서 일본 식목협회 치바현 지부장이신 川口岬一의 농장방문. 일본식 목협회 상무이사 瀧原正男도 참석하여 따듯이 맞이해 줌.
- 주요학습내용
 - 농장은 평지대로서 약 2ha로서 주로 다양한 나한송변종 및 수심종의 희귀수종을 재배하고 있음.
 - 대부분 노지재배로서 각종 새로운 수종 및 변종, 개체선발로 육종 조경수를 다양하게 증식하면서 생산하고 있음.



▲ 황금나한송 변종생산



▲ 붉은 눈 나한송



▲ 川繁園(가와시겐)농장에서 단체사진

주요수종으로는 나한송(이즈마끼)가 주종을 이루며 특히 붉은눈 나한송, 뱀눈나한송, 황금적송, 황금나한송, 사철아카시, 사철산딸, 꽃산딸, 황금광나무, 변색목수국, 황금주목 등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없이 자비로 개발하며 번식방법은 나무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 접목을 위주로하며 삼목, 하지삼목, 분근 등으로도 함.
- 최근 일본은 정부발주 조경공사를 많이 하지 않아 산업이 침체되고 있어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중국에 나한송으로 중국 불교문화와 연관되어 많이 수출되며, 한국에도 벚나무도 수출되고 있음.
- 이 지역은 위도 상으로 서울과 비슷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온난해서 우리나라 남쪽지방의 난대수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이웃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함.

- 15시 20분 : (유한회사)카쿠타그린 농장대표 角田治一씨의 비닐하우스 시설물내 용기재배(화분재배) 농장방문, 농장은 평지로서 면적은 약 5ha 규모이며, 종업원은 9명으로 상근은 남자 4명, 여자5명으로 구성됨.

○ 주요학습내용

- 각종 크기 및 규격에 따른 용기묘를 재배하고 있음.



▲ (유한회사)카쿠타그린 농장방문



▲ 시설용기재배

- 비닐하우스내 빨남천, 네군도단풍변종, 블랙버드, 골드 고즈스트, 넓은잎 홍가시(미국종 × 한국종교잡)등을 재배하고 있었음
- 용기재배의 장점은 식물의 병해충방지 및 기상적피해 등 안전성. 규격통일 생산(규격화), 계절없이 식재, 활착 상황양호(하자율이 없음), 단점으로 생산비가 다소 많이 들지만, 앞으로 대량생산으로 해결되며 이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용기양묘 및 용기재배로 많은 연구 및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캐나다, 네덜란드 등).
- 농장주인 부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함. 신선하고 푸짐하게 제공해 준 과일과 떡, 음료수, 특히 지역 특산물까지 주어서 장거리 여행에 지친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줌.
- 농장직원들과 토론(질의응답) 결과
 - 조경수가격결정은 지방조경수유통센터에 위탁판매하여 경매시세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함으로 생산량에 따른 가격차이로 생각되며, 대부분 개인 소규모판매보다 유통센터위탁판매가 주로 이루어짐. 개인이 받을 금액을 제시하지만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함.
 - 정부발주공사에 들어가는 가로수나 조경수는 규격에 따라 정부고시가격이 있어 이 기준에 따르지만, 이외 거래가격은 자유가격제로서 유통시장에서 자유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조경수의 등급(A,B,C)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 일본의 조경수규격은 흉고지격(B), 넓이(W), 높이(H), 수고(L)로만 정하고 한국에서 적용하는 근원경(R)은 없음. 아마 한국과 기온 등 차이로 상품의 기준을 정할 때 낮은 키의 조경수나 다지형 조경수, 오래된 연수를 가진 수목을 측정할 때는 차이가 나고, 또한 문화적이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전원적인 농촌모습이 친환경적으로 생태도시처럼 깔끔하고 규모있는 농장모습, 깨끗한 물이 수로를 타고 흐르는 모습, 하늘은 흐리지만, 맑고 산뜻한 느낌을 받아 오래된 목재주택이지만 연륜이 묻어 주위 환경과 너무 잘 조화를 이루어 인간적인 면이 돋보이는 목가적인 풍광임. 준비해 간 선물을 드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회원들은 사이다마(埼玉)현 가와구치시 센



▲ 빨남천 용기재배

타호텔로 향함.

- 일본은 장마철이지만 비가 오지 않아 여행하기는 좋은 날씨지만, 저수지 저수량이 부족하다고 함.
- 가는 도중 중간 휴게소를 거치면서 주위 풍광은 매우 아름답고 산림을 잘 가꾸어 특히 편백 및 삼나무림의 대경재의 짙은 녹색이 아름답다. 가와구찌시로 들어서면서 동경의 위성도시로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인지, 고층빌딩들이 많이 눈에 보인다. 내일 유통센타를 방문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 숙소를 정했다.
- 유통센타 경매는 우리나라 농촌의 5일장처럼 지역따라 열리기 때문에 제때를 맞추어 견학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 저녁은 시내 식당에서 일본식으로 하고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이 오래되어 방이 작아 1인 1실로 정해져 숙박하다. 방은 작지만 깨끗한 편이었다.



▲ 플라밍고네군도단풍 용기재배

(7월 4일)

- 날씨 : 흐리고 비가 내림
- 06시 10분 짐을 챙겨서 사이다마 유통센타 견학을 위해 출발시간이 없어 아침식사는 휴게소에서 빵과 우유를 구입하여 버스안에서 식사.
- 사이다마(埼玉)에 도착(07시40분), 사이타마 원예시장에서 절화용을 경매하는 광경을 관람함. 처음 보는 장면이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사이다마 원예시장 대표 오노(大野秀雄)로부터 설명을 듣다(회의실 좌석마련됨).
- 연중 7월달 매매량이 가장 적고 8월달은 아예 휴업상태다. 연간 매출액은 130억~140억엔으로 조경수가 25억엔, 절화가 30억엔, 원예작물 등이 60억엔, 부자재가 15억엔 정도이다. 경매는 38년간 전통을 지키고 있다.
- 경영상태는 흑자며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



▲ "사이타마" 원예시장초화류 경매



▲ 원예시장 내 자재 전시장

일본내에서 원예시장으로 가장 크고 건물은 6천평이며 본건물은 5천평으로 일본에서 가장 크며 내일 가실 안교(安行)에 있다가 6년전 이곳으로 이전했음. 앞으로 관서 외곽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가장 좋은 조건의 유통센터가 됨.

- 본센터는 개인소유로서 사이다마현에서 허가되어 운영되며 운영자금은 지방정부(사이다마현)으로부터 5년거치 25년 - 30년 상환으로 이자는 약2% 저리로 융자받아 경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유통센터 마다 신용도 등에 따라 지방정부가 별도 융자 금액, 기간 등을 정한다고 함.
- 다른 지방은 관민합동형태로 운영되며 전국 대소 유통센터는 약 200개 정도 있으며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곳은 없다.
- 가격결정은 각 유통센터에 소속된 경매자로 하여금 이미 등록된 도매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매입한 후 직접소매업이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며, 생산자는 유통센터에 위탁판매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임.
- 생산자가 유통센터에 위탁판매는 약80%, 20%정도는 도매업자에게 개인한테 구입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형태임.
- 경매하는 방식을 보면 건물이나 노지에 일정규



▲ 원예시장 내 조경수 판매용 가식장

모로 조경수를 위탁한 상품별로 경매자가 차례로 손가락과 특수 언어로 부르면서 입찰자들에게 최고 가격부터 내려오면서 값을 정해 응찰하는 형식임. 대부분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되면 쪽지에다 별도 특정 부호로 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어판장이나 청과물시장의 경매방식과 비슷하다.

- 조경수수출 대상국가는 중국, 이태리, 폴란드, 독일, 체코, 네덜란드 등이며 미국은 안한다고 함.
- 우리나라는 대부분 천연생 소나무를 이용하는데 반해 천연생 활엽수를 조경수용으로 수급되고 있음.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 수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음.
- 모치고미(뿌리돌림)시에 우리나라는 고무바나 철사 등을 사용하여 토양환경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대용품으로 천연소재로 제작된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행선지인 가와구찌시 안교(安行)로 출발함.
- 가와구찌(川口)시영식목(市營植木)센터 안교식물취인소(取引所)도착 : 오전 10시경
- 일본식목협회장 반 谷勉, 시찌구라 이사, 다가하시(高橋), 추산(秋山)사이타마 부장, 사샤끼(鈴木誠一)가 반갑게 맞이 해주며 상호 상견례



▲ 원예시장 조경수 경매광경

를 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한일우호 증진에 기여함.

○ 사샤끼(鈴木誠一) 안교식물취인소 대표께서 본 유통센터에 대해 설명함

- 본 식물센터는 주주가 394명으로 공동주식회사형태로 1사람이 500주이상 구입못함.

- 규모는 사이다마현의 유통센터보다 1/10정도의 적은 규모이지만 좋은 조경수를 생산 유통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함.

- 연간 매출액은 20억엔 가장 적을 때 4억 엔으로 그 이하로 내려 가면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며

- 전국에서 시단위에서 유일하게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며 이것은 370년 전통을 가진 전통산업으로 육성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청과 농협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음.

- 수종은 다양하며 중국과 한국(무궁화)으로부터 개발된 수종도 있음.

- 현재는 조경수 산업이 침체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희망있는 산업으로 생각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함.

- 부지와 건물은 시에서 제공하고 시설물관리를 위해 시청에서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지원하고 있음.

- 조경수수급경향은 대모는 판매가 부진하며, 소묘위주로 판매되고 있음. 좋은 조경수만을 출품함으로 대다수 판매되므로 변종 및 희귀종 등 새로운 수종의 조경수 개발 품종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 1달에 1번정도는 큰 시장이 형성되며 관련 종사자 가구수는

약 3천가구였지만 현재는 350가구로 축소됨.

- 경매방식은 전문경매사가 있어 등록된 자에게만 중간도매자에게만 판매함. 그러나 건물 밖에 있는 조경수전시물은 등록된 일반인도 경매에 참가하여 구입할 수 있음.

- 오전 일정이 끝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식목협회장이 오찬을 제공한 식당(刀屋:하모노야)으로 이동. 식당은 깨끗하고 음식은 정갈하여 반주를 곁들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



▲ 일본식목협회 회장단 일행과 상견례 광경



▲ 안교식물센터 조경수가식전시장

에서 선물교환, 회장들의 인사말씀, 건배 등 순으로 진행됨. 약 6년 전부터 소원해졌지만 다시 한일교류에 힘있어 조경수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식사하면서 상호질의 응답시간을 가짐.

- 임야청의 금융융자제도는 없고 있어도 까다롭고 해서 신청안하고, 대신 지방정부에서 농림사업기금으로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수출하는 품목은 중국에 나한송, 유럽에 단풍나무, 낙엽수종, 미국에는 종자나 묘목이며 수입은 미국에서 단풍나무를 수입한다고 함.
 - 조경수거래시 세금관계는 거래시 소비세 5%, 별도 부과가치세가 있다고 함.
 - 조경수로서 희귀 가치있는 수종으로 황금메타세콰 이어, 수양 때죽나무, 남천변종, 빨남천, 플라밍고 네군도단풍 등이 있다. 대부분 접목으로 증식함.
- 오늘 일정이 끝나고 동경으로 출발.
- 동경에 들어와서 시간이 있어 일본 천왕이 있는 왕궁 및 정원 등을 견학함, 일본 특유의 섬세한 문화에 힘 있어 해송을 위주로 조형된 형태로 정원을 볼 수 있음.
- 동경의 중심지인 신주구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구경하고 게요리 전문집인 力江道樂식당에서



▲ 안교식목센터 내 사무실 광경



▲ 가와구찌 시찌구라시 농장방문



▲ 동경 황거공원

반주를 곁들여 맛있게 식사함. 식사 후 버스를 타고 약 30분거리에 있는 일본 3대 호텔에 들어가는 특급호텔인 '뉴오다니' 호텔로 들어감. 시설이 매우 좋아서 특히 잠자리가 좋아서 장거리여행에서 좋은 안식처가 됨.

- 오늘로서 모든 많은 공식일정은 끝나고 내일부터는 자유투어 시간임.

〈7월 5일〉

- 날씨 : 많음
- 08시 호텔 40층 전망좋은 스카이라운지에서 정갈한 양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하코네국립공원 견학을 위해 출발



▲ 황거공원 기념촬영



▲ 하코네 국립공원

- 고속도로 및 국도따라 잘 가꾸어진 편백 및 삼나무 숲이 인상적임. 점차 하코네국립공원내로 들어서면서 천연생 다양한 활엽수 들이 잘 보전되어 있고 잘 정돈 목조 주택 및 시설물들이 정갈하게 보임.
- 해발 723m 높은 고지에 형성된 화산분화형 칼데라호인 '이시노' 호수위를 유람선(해적선)을 타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선상에서 주민들의 사는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김.
- 배에서 내려서 3000년 분화된 화구의 일부인 '오와쿠다니' 유황계곡을 따라 등산함. 아직도 뜨거운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광경은 신기하며 유황온천물에 익힌 검은 달걀맛은 별미다. 까만껍질에 속살은 희고 노오란 색깔이 매우 생동감이 난다.
- 하코네 공원내 온천탕에 들어가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하니 피로가 풀리며, 일본의 많은 온천자원 부럽기만 하다.
- 호텔 숙소로 돌아오는 도중 동경도 청사를 구경함. 맨 위층까지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서 동경전 구역을 관망하니 매우 넓다. 아마 서울보다 더 큰 것 같다. 서울에 비해 공기오염 등 환경은 훨씬 좋아 보인다.
- 신주규시내 관광한 후 면세점에서 친지 선물들을 각자 회원들끼서 구입하다. 간단한 선물과

실용품을 구입함.

- 오랜 만에 한국식당에서 한국식으로 해물탕으로 맛있게 반주를 곁들여 식사하다. 숙소로 들어와서 휴식을 취한 다음 오늘 마지막 밤으로 그간의 견학한 것을 토대로 호텔 인근 한국식당에서 자유롭게 맥주한자씩 놓고 의견을 교환함.



▲ 동경 도청타워에서 바라본 시내전경

<7월 6일>

- 날씨 : 맑음
- 전날과 마찬가지로 호텔 4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양식으로 식사함.
-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동경대표사찰 '아사

쿠사' 관음사 관광함. 전통사찰로 한국 사찰과 비슷하며 규모는 꽤 크며, 특징은 부처상은 관람시키지 않고 있음.

- 11시 30분경 귀국을 위해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 회장님의 인사말씀. 정우홍이사님의 노랫가락, 최귀남전남동부지부장님의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로 어느새 공항에 도착하니 아쉽지만 다음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가이드 이진희의 안내로 출국 수속을 전원 마친다.
-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김창옥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간 홍장노 전부회장님의 꾸준한 한일 조경수관련 인사들과 교류와 가이드 이진희씨의 유창한 전문적인 통역으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됨.
- 성공적으로 견학할 수 있었던 것도 전회원님께서 질서있는 행동과 단정한 모습이 모범적이었음.
- 일본식목협회 회장님과 관계자의 따뜻한 환대와 농장이나 유통센터의 현황 등을 정성껏 설명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전원 24명 김해국제공항에 오후 4시10분 도착하여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각자 집으로 향함.
- 오늘 일본 조경수유통센터 견학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정리하여 회원들에 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 론

● 유통사업

- 일본의 조경수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및 주요 유통수종 등 경향
 - 오랜 전통을 가진 전문적인 조경수 유통체계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생산자와 유통업자(도매업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어 생산자에게 일정 소득보장과 생산의욕을 증진시킴.
 - 일본에서 유통센터는 조경수 단일 종목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식물 전반적인 품목을 취급하며 조경수, 절화, 분재 등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농산물도 함께 취급하는 유통센터도 있으며, 대부분 유통센터

재무구조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으나 대부분 흑자라고 답변하고 있어 처음 시도하는 한국으로서 고무적인 희망있는 산업으로 사료됨.

- 유통센터는 전국에 대·중·소 규모를 합쳐 약 200개소로서 자유경쟁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고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전통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및 시설부지제공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센터 운영자금을 농림기금을 5년 거치, 25년에서 30년상환 약2% 저리융자하고 있음.
- 1990년대 부동산 붐으로 거품현상이 점차 꺼져가면서 조경수산업도 현재 침체기이지만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환경조경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희망을 가지고 조경수종개발 및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유통센터는 대부분 생산자들의 주주로 결성된 조합형태로서 이윤창출에 부단한 노력과 새로운 조경수 소재(부자재)산업 유통에도 함께 취급하고 있음.
- 생산자가 유통센터에 위탁판매하는 것은 약 80%정도이며, 약 20%는 등록된 도매업자가 일반인에게 구입해서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있어 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생산업자가 위탁판매를 의뢰할 때 받을 금액을 제시하면 유통센터에서는 지정된 경매인에게 현장 가식된 수목을 놓고 등록된 도매업자가 입찰토록 하여 최상한가격에서 점차 아래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자유경쟁에 의해 경매되어 가격이 결정됨으로 우리나라의 청과물시장이나 어시장에서 행하는 방법과 비슷함.
- 조경수목의 유통거래시 소비세5%, 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조경수목의 규격은 우리나라 비슷하지만 근경(R)규격은 없어 단순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사 시(가로수식재 등) 정부의 규격별 고시가격이 있어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기능성 조경수목은 일반적인 규격보다 조경수목의 조형의 형태나 미적기능 등에 의해 품질등급(A,B,C) 가격이 좌우되므로 '가격 자유화'

로 대부분 경매에 의해 결정되어 때로는 시기별로 지역별로 조경수의 출하량 및 수급량의 영향을 받아 이를 반영한 경매로 조경수 가격이 차이가 있음.

● 조경수생산 및 소비경향

○ 일본조경수 생산농장의 최근 유망 조경수종 및 규격 등 생산방향

- 국내 경기 침체로 해외수출상품 개발로 희귀 조경수목의 변종 및 품종을 다양하게 증식하여 해외수출상품에 역점을 두고 있음, 예를 들면 황금메타세콰이어, 플라밍고 내군도단풍나무, 수양(처진)때죽나무, 붉은눈 나한송, 뱀눈 나한송, 황금나한송, 변종납천, 뿔납천, 사철아까시, 사철산딸나무, 꽃산딸, 황금광나무, 변색목수국, 황금게라(일본주목), 넓은 잎 홍가시 등 다양한 새로운 수종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우수수종을 도입하여 상품화하고 있음(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 및 한국은 무궁화 등 수입).

- 증식방법은 일반적인 조경수목은 실생이나 삽목 등으로 하지만 희귀수목은 대부분 접목형태로 대량증식하며 일부 삽목이나 하지삽목도 실시하며, 분근 등 방법도 하고 있음.

- 소비경향은 정부발주 큰 공사는 예전처럼 없지만 소규모사업은 있으며, 대부분 민간소비 위주로 소규모 소비를 하고 있어 다품종 소량소비패턴형태임.

- 국내침체로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어 유럽국가인 독일, 이태리,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중국(나한송류) 등에 검역관계가 까다롭지 않아 흙을 붙인채(특수 개발된 위생적인 배양토) 계절없이 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천연산림수목도 조경수목으로 활용하는데 대부분 활엽수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소나무는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적임으로 우리도 잡목이라는 활엽수를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조경수 이식 유통시 뿌리돌림 소재로 대부분 천연소재 마대 및 밴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무바나 철사 등은 사용하지 않아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음.

- 대부분 노지재배보다 시설 및 용기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다. 조경수 소재 용기양묘에 따른 다양한 용기규격과 수종별 특성을 감안한 용기 등을 제작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규격 조경수를 생산하고 하고 있음. 약 3m까지 수목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한 크기의 수목도 재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시급히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제도개선

○ 생산의 규모가 현행 산지관리법상 3ha에서 10ha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경제적인 규모화된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

○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보다 합리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으로 우선 중앙정부의 유통센터 운영시설 및 자금을 확대해야 할 것임.

○ 해외 수출 조경수목 개발을 위해 위생적인 용기생산에서부터 검역절차까지 관련부처들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 우리나라 실정으로 용기양묘는 초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중·대묘 조경수목 재배생산을 위해 연구개발 및 정부지원이 대되어야 할 것임.

○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가격결정에 있어 중요한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Net Work를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자 소득보장 등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임. 🌳

